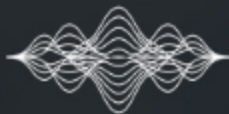


경험으로 공감하고,

혼자 감당해 온 두려움에
먼저 귀 기울입니다.



검사와 상담으로 살피고,

보이지 않는 마음과
몸의 신호를 함께 읽습니다.

